

“작은 배려가 대형 화재 막는 ‘골든타임’ 확보”

광주서부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동행해보니

양동시장 상인들 노상 좌판 정리 ‘일사불란’ 협조 초기 화재 진압 위해 시민 인식·자발적 동참 중요

“실제 화재에 대비한 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훈련과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주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위해 차량과 훈련용품 등을 정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훈련은 소방서·구청·서부경찰서·의용소방대에서 파견된 인력과 중·소형펌프차, 경찰차 및 서구청 단속 차량 등 각종 장비가 동원돼 서부소방서를 시작으로 화정역, 서구청, 양동시장을 거쳐 서부소방서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진행됐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실제 출동 훈련을 통해 시민들의 소방차 양보의식 향상과 양보 운전 요령 등 교육효과 제고 차원에서 실시된다.

서부소방서는 시설물 밀집도가 높아 화재에 취약한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해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양동시장을 훈련 코스에 포함, 9개 구역으로 진입로를 나눠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서부소방서부터 화정역과 서구청을 지나기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됐다.

그러나 양동시장 입구부터 뺨뺨이 들어선 주차장에 동승한 소방관들이 내려 차량 진입을 유도하면서 본격적인 길 터주기 훈련이 시작됐다.

소방차는 길가에 세워진 차량과 오토바이, 리어카 등을 피해 어렵게 시장에 들어왔으나 내부 사정도 여의치 않았다. 시장 양쪽에 길게 늘어선 좌판이 통행로마저 침범해 이를 치우지 않으면 대형 펌프차량의 이동은 불가능했다.



골든타임의 범시민적 관심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21일 오후 광주서구 양동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렸다. /김애리기자

이렇게 훈련에 자질을 빛내었지만 소방차량을 보고 훈련을 인지한 상인들

이 소방관·의용소방대원의 유도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좌판 정리를 시작했다.

한 상인은 이를 보며 시장이 혼잡해 소방차량의 이동이 여의치 않지만 포기하

지 않고 계속된 훈련으로 실제 화재 상황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통행로가 확보되면서 이에 무난히 훈련을 마친 후 황급히 뛰어나와 차를 빼는 차된 차량에 다시 발이 묶였다.

그러나 소방 차량을 보고 차량 주인이 인근 가게서 황급히 뛰어나와 차를 빼는 등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동참에 이날 훈련은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됐다.

서구 화정119안전센터 이우석 센터장은 “실제 화재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월1회 정기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양동시장은 규모가 크고 시민들의 왕래가 많아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수 있어 이에 대비한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숙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과 동참이 우선돼야 한다”며 “더 큰 피해로 번지기 전 화재 초반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 진화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훈련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재영기자

광주 사회복지법인 임시총회 무효 소 제기

일부 임원 “정관 위반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

광주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회장) A씨가 정관의 규정을 무시하고 임시총회를 강행해 이사 해임 등 전횡을 했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무효 확인 소장이 법원에 제기됐다.

21일 사단법인 S사회복지법인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는 법인 정관에 적시된 이사회 소집 및 임원 선임 규정 위반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이어 이사회가 무산된 같은 날 임시총회를 강행해 일부 이사를 해임하고 A씨 측 인사들을 선임자사로 선출했다.

J씨 등 이사들의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A씨는 법인 정관 제4장 제

23조 3항에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리 안건 등을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또 소장에 의하면 대표이사 A씨는 5일 이사회에서 이사 등 안건 선출안이 제외돼 무산되자 곧바로 임시총회를 강행해 J씨 등 이사를 해임하고 A씨 측 인사들을 선임자사로 선출했다.

이는 임시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은 정관 제4장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제5항에 의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함께 소장에서 A씨가 법인을 사유화하기 위해 기존 회원을 탈퇴시키고 A씨와 가까운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처와 아들까지 가입시켜 임시총회의 결의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적시했다.

해임된 법인 이사 관계자는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개인의 무소불위 권력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등 사유화됐다”면서 “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이 증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S사회복지법인은 기존 자산 1천만원으로 광주 4개, 전남 1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매년 16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운영하는 초거대 법인이다. /김동수기자

‘미화원 채용 비리’ 나주시 공무원 구속

금품을 받고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 참여한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주시 계약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고 나주시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미화원 채용에 도움을 주

겠다고 특정인에게 받은 3천만원을 A씨에게 건넨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B씨를 포함한 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월 19일 나주시청에서 인사·채용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A·B씨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수기자

“광주도시공사 개발이익 환수조치 지침 마련하라”

참여자치21, 민간 사업자 과도한 이익 사업 구조 비판

광주 한 시민단체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도시공사가 개발이익 환수조치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 재공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 21은 “첨단3지구 연구개발 특구 사업의 용지 조성 및 기반공사와 공동주택 매입 이권을 대행하는 개발사업자 선정 공모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논란의 핵심이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에 대한 구체적 지침 없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도시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약 7천억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할 힘이 부족

하다면 광주의 미래를 위해 빛을 저야 하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을 직접 설득하라”며 “민간 자본에겐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면 이들을 끌어들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첨단3지구 조성사업은 1조2천억원을 투자해 361만6천여㎡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재영기자

검찰, 김삼호 광산구청장 2심도 징역 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에서 현행 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된다.

검찰은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유호 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불법적인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구청장 측은 당시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며 불법적으로 당원 모집을 한 사실이 없으며 민주당 지지, 당원 가입 권유자의 이익을 위한 가입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식품업체가 2-3일 내에 출고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할 나물을 공단 뿐 아니라 사찰,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골프 비용 역시 친한 선배의 남편이자 대학 선배를 처음 초대해 비용을 내졌을 뿐 선거구민도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까지 공단 이사를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거쳐 2018년 6·18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동수기자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 | 책임 A/S
-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급매 전문

늦으시면 앓아하십니다

[돈되는 상가]

- 나주시 용산동 가족놀이 테마공원(10만평) 입구 4차선 대로변 제1층 주거지역대지2,281㎡(690) 단층건물 937.52㎡(283.6) 매가:9억5,000 ***대형음식점,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역 비주택 원룸]**
- 자연녹지 3,467㎡ 2층 건물 3층 톨60개
- 급매8억
- ***월1,000만원 수익 가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모텔·호텔(지역무관)
-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